



자연으로부터 삶을 배운 인디언의 철학이 독자의 마음을 끌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땅》(시공사) 중에서)



에스키모 '피트시우락'은 얼마전 고향인 북극의 '누나부트'로 돌아갔다. 평균기온은 영하 45도, 1년 중 10개월은 눈으로 덮여 있는 혹한의 땅에서 아내, 여섯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족배 만들기, 썰매타기, 얼음낚시를 배우고 있는 그들에게 '문명국' 기자들은 교육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자연의 영혼, 인디언

인류가 자연을 배반한 대가를 특특히 치르고 있는 지금, 자연으로부터 삶을 배운 인디언의 철학이 독자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 1492년 콜럼부스에 의해 알려지기 전까지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인디언 철학의 요체는 자연과의 친화. '백인이 오기 전까지' 인디언의 유일한 법은 "구름과 바람의 모든 숨결을 되돌이켜서 새롭게 이야기해 주는 어머니 대지의 지혜"뿐이었다.

인디언의 철학을 담은 《꿈꾸는 사람만이 지혜를 찾는다》·《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이상 생각의나무)·《흙 한줌 물 한모금의 가르침》(씨앗뿌리는 사람)은 물질보다 영성의 힘을 신뢰했던 자연의

영혼으로서의 인디언을 말한다. 잠언, 때로는 동화의 형식을 취한 이들 철학은 특히 자연을 대우물로 삼은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 더 감동적으로 전해진다.

가령, "인생이란 무엇인가. 밤하늘의 반딧불, 한겨울 들소의 콧바람, 풀썩에 짧게 드리워졌다 해가 지면 사라지는 작은 그림자인 것을" 같은 속담. 온갖 생물과 무생물을 친구와 형제로 삼았던 그들은 "우리에게 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찌 형제자매가 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너희 조상들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우리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논밭을 망쳤을 때도 우리는 그들을 '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아모이크니클리'라고 불렀다. 그 말은 '우리 형제이기를 거부하는 형제들'이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문명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소박함을 비개성으로, 모든 사람을 동료의 영혼으로 인식하는 순진함을 명칭함으로 이해했다. 그러니 인디언의 문화는 정복하거나 교화해야 하는 미개와 야만의 이름이었다. 그들의 역사가 대량 학살과 강제 이주로 점철된 것은 그 때문이다. 끝까지 싸웠던 아파치 전사 제로니모의 이야기(《우리는 영혼을 팔지 않았다》(포리스트 카터, 이룸드림미디어))나 학살을 피해 떠난 나바호족의 대장정을 그린 책(《달빛 노래》(스콧 오텔, 우리교육))은 지고의 가치였던 문명의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문명의 야만이 피살한 이름

인디언이 들려주는 이야기

인류가 자연을 배반한 대가를 특특히 치르고 있는 지금, 자연으로부터 삶을 배운 인디언의 철학이 독자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

백인들이 들이다치자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였던 인디언들은 땅을 나누고 서부로 떠났다. 하지만 백인들은 한치의 땅도 나눠가지려 하지 않았다. 추장들이 백인들의 요구대로 시민권을 받고 살아갈 테니 더이상 종족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인디언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것이 문명의 본색이었던 것이다. 인디언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멸종 직전까지 싸웠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인디언의 이름에는 편견의 흔적이 남아있다.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애초의 잘못된 작명에서 '문화가 뒤떨어진 사람'으로 깔보는 뜻을 담게 됐다. 인디언의 이름은 자연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글을 잃어버린 지금 '러닝 폭스(달리는 여우)', '포 베어스(네마리 곰)', '보 앤 쿼버(활과 활통)', '블스 백 팻(황소의 등 비계살)' 같은 영어이름으로만 남아 있다. 그뿐인가. 캐나다 북쪽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날 고기를 먹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인간이란 뜻의 '이누이트'였고, 아즈텍의 터전은 아메리카가 아니라 '미셰 마키나롱(거북 등)'이었다. 전세계에 남아 있는 인디언의 숫자는 약 1천7백만. 그들은 정책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살고 있다.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그들에 대해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이현주 기자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일제의 실상과 역사적 폐해 파헤친 책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사슬로부터 풀려난 지 54년이 흘렀다. 우리는 과연 일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최근 발간된 관련서 몇권은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역사조차 바로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은 최근 헌법을 개정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정신적 표상인 기미가요를 국가로 정했다. 이로써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이미 지역 패권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제국주의 부활을 완성했다.

일제의 한반도 점령과 수탈

일본이 제국주의 건설을 도모하는 것은 '천황제'와 연관이 깊다. 열도의 탄생신화와 함께 등장한 천황은 일본 역사의 맥을 관통하며 정신적 근간이 되고 있다. 《누가 일본의 얼굴을 보았는가》(푸른역사)는 2660년 동안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은 천황의 모습을 담고 있다.

황국정신을 기틀로 일찍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제국을 건설한 일제는 아시아 대륙으로 상륙을 시도한다. 근대의 길목에서 갈팡질팡하던 조선의 지식인 가운데 더러는 일본을 방문했지만 그들의 간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신사유람단의 일본 방문기를 재현한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당대)는 신문물을 대하는 조선인의 면모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당시 일본을 다녀온 지식인은 위정척사론을 내세워 개혁을 주장하지만 조선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나라로 빠져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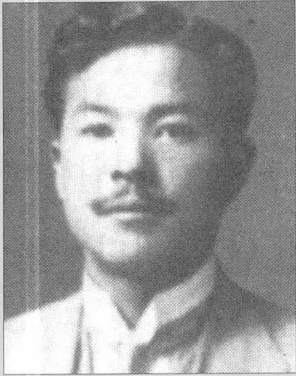
한반도를 점령한 일제는 갖은 계략으로 조선을 수탈했다. 무엇보다 잔악한 짓은 인적공출. 장편소설 《콰이강의 다리》(한길사)는 총일반이로 공출된 조선인 김덕기의 비극적인 삶을 그렸다. 힘없는 백성으로 태어난 죄로 태국 국경지역의 '콰이강의 다리' 근처에서 군속으로 복무한다. 갖은 굴종을 감내한 끝에 해방을 맞이하지만, 그는 이미 전범자일 뿐이었다.

김씨와 같은 수많은 조선 백성을 일제의 소모품으로 몰아낸 사람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같은 민족의 기득권자였다. 정치가는 권력, 경제인은 돈, 언론인과 작가는 붓, 종교인은 신의 이름을 빌어 동포를 내몰았다.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개마고원)는 대를 이어 충성한 민병석 부자, 일제에 빌붙은 공주 갑부 김갑순, 대동아공영을 설파한 김활란,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고 외친 이광수와 김동환, 그리고 일본풍 무용기법으로 무장한 무용가 최승희 등의 친일 행적을 들춰낸다. 더불어 애국을 위장한 수많은 친일분자의 매국 행위를 보여준다.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

1945년 8월 6일, 열도는 푸른 섬광으로 휩싸였다. 소설 《검은 비》(소화)는 원폭투하로 고통받는 일본인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전쟁의 고통은 조선이나 일본이나 힘없는 백성의 몫인 것이다.

역사는 제국의 패퇴와 함께 전범자와 동조자에 대한 냉혹한 심판을 해야 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한 우리는 1949년 1월 5일 중앙청(이역시 역사의 아이러니다) 205호실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발



친일행적이 드러난 인물들.
왼쪽부터 전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
작가 이광수, 무용가 최승희

동했다. 프랑스가 독일 지배 당시 반민족 행위자 수백명을 사형했고, 1만5천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처럼 매국노에 대한 엄벌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을 움켜쥔 친일분자의 반발과 이승만 정권의 반대로 '특위'는 8월 31일 해체되고 말았다. 《증언 반민특위,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삼인)는 '반민특위'에 참여한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를 묻고 있다.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지금 마지막 생존자의 피맺힌 절규가 행간마다 맺혀 있다.

일제의 항복을 받아낸 미국은 전범자 처리를 위해 재판을 거행한다. 《도쿄재판》(예담)은 그 실상을 낱알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승리감에 취한 미국은 이성적인 재판을 수행하지 못했고, 더욱 참전국간의 이해타산으로 재판은 영영 '블랙홀'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아직도 견어내야 할 일본식민주주의의 찌꺼기는 많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가 역사학자 및 교수 1만여명의 이름으로 30권 분량의 '친일인명사전'을 펴낼 계획을 발표했다. 만시지탄이나 뜻깊은 일이다.

— 오원진 기자

“친일자 색출은 평생의 업”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증언 반민특위,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펴낸
정운현씨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애국을 위장한 친일분자의 손에 역사는 왜곡됐지만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전무하다. 이승만 정권뿐만 아니라 '특위' 운운하며 잔재 청산을 외친 역대 정권은 결국 그들에 귀의하고 말았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일제의 잔혹상과 매국노의 친일행위에 대해 증언할 생존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료 발굴과 관련서 편찬에 전력을 기울인 대한매일신문의 정운현 기자가 요즘 부쩍 몸이 달아 있다. 그들이 사라지면 매국노의 진상은 영영 역사 속으로 묻히고 말기 때문이다. 또한 사료를 찾아 기록하는 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친일분자 색출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죄를 못하면 차선이나마 사료라도 많이 남겨야 후손들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친일분자 색출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혹자는 과거를 들먹일 게 뭐냐며 탄죽걸고, 혹자는 묵묵부답으로 외면한다. 그래도 그는 특히 언론에 관계된 친일분자 색출에 생을 걸기로 했다. 아울러 그에게 이 작업에 발을 들여놓도록 이끈 고 임종국의 평전도 곧 펴낼 계획이다.

— 오원진 기자

너무나 높은 곳에
당신이 계십니다.
저의 작은 발로
찾아뵙기에는...

-Parknoin@chollian.net-

- 99.08. 일본고서점 그라피티 -동경편
- 99.05. 문헌탐색 가이드
- 99.04. 일본의 서적출판사
- 98.10. 번역출판실무
- 97.08. 일본의 고서점 찾아가는 길

신한미디어

TEL:02)2282-4963, FAX:02)2298-2943
www.booknet.co.kr./shinhan media